

“광주에 투자하세요” 新경제도시 세일즈 시동

姜시장, 국내외 기업 대상 투자 환경 설명 투자해도 되는 3가지 이유 제시 매력 어필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광주 투자환경 설명회'에서 국내외의 1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新경제도시 광주 세일즈'에 나섰다.

강 시장은 '광주에 투자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이제는 된다"고 확고하게 대답했다.

그러면서 '매력적인 투자 광주, 광주에 투자해도 되는 이유 3가지'를 제시하며 광주의 투자 환경과 강점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 공직자에게 '우리는 기업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세일즈맨이고 기업의 홍보대사'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책임감으로 시장부터 발로 뛰어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에 투자해도 되는 3가지 이유로 ▲'삼성'이 투자하는 광주 청년의 가능성 ▲'현대'가 믿고 투자한 광주의 상생 DNA ▲융합의 시대 대한민국이 키우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를 꼽았다.

강 시장은 "삼성이 투자하는 광주, 청년의 가능성을 봐달라"며 "내년부터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등 삼성의 스타

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C-lab 아웃사이더 사업을 시작한다. 그동안 광주는 여러 이유로 투자 유치가 힘들었지만 이제 삼성도 광주의 가능성을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시장은 연구기관과 인준기관이 집중된 연구-실증-인증 집적단지를 강점으로 내세우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인공지능(AI) 영재고 설립을 약속했고 인공지능(AI) 마이스터고도 별도로 만든다. 초·중·고부터 대학, 일반까지 3단계로 구성된 인재 양성 사다리

를 완성해 양질의 인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시장은 "현대가 믿고 투자한 광주의 상생 DNA도 주목해달라"며 "광주는 상생할 때 확실히 상생할 줄 아는 도시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전기차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융합의 시대 대한민국이 키우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를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을 광주가 중심이 돼

이끌고 있다"며 "데이터센터 등 1단계는 이미 완성 단계에 있고 2단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제 광주는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여러분들이 게임 체인저가 돼 광주 미래에 투자해 달라"며 "정주여건 개선, 물류, 인적 인프라 구성 등 시장인 저와 4천900명의 공직자들을 책임지고 해내겠다. 기업의 요구에 맞춤형으로 응답할 준비를 마친 만큼 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광주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박선강기자

전남 '귀농어귀촌' 고흥군 최우수

전남도는 1일 "귀농어귀촌 정책 1년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2022년 전남도 귀농어귀촌 정책 종합평가를 통해 고흥군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이어 우수상은 보성·강진군, 장려상은 화순·장성·해남군이 차지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각 200만원, 장려상 각 100만원이다.

고흥군은 귀농어귀촌 자체 교육·설명회 개최, 다양한 귀농어귀촌 홍보활동 추진 등 평가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추진 실적과 누리집 정보제공 부문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뒀다.

보성군은 전남에서 살아가기 운영, 강진군은 귀농어귀촌 교육 운영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 시·군 시상은 2일 열릴 예정인 '2022년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대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2022 광주시정 보도자료사진전 개막

1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22 광주시정 보도자료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내빈들이 김진수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의 안내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도, 수산양식박람회 홍보관 운영

전남도는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2년 Sea Farm Show 수산양식박람회'에 참가해 전남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3일까지 이어진다.

전남도는 박람회 기간 중 '전남도 명품 수산물 홍보관'을 운영해 전남산 명품 수산물과 가공품 50여 품목을 전시, 우수성을 알리고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 유치와 '고향사랑기부제' 정책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람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해양수산 유관기관과 수산물 생산·가공업체 등이 참가했다. 양식수산물 요리대회, 수산물 경매, 바다 공예품 만들기 등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돼 방문객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김재정기자

복지시설 종사자 60%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전남도의회 연구단체, 관련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고 10명 중 4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는 1일 "최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가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구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향상을 위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고 이날 보고회는 용역 진행 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0월 4일부터 4주간 온라인 설문(324명 응답)과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조사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배경과 양상을 심층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7%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수치는 여성과 중간관리자 이하에서 높게 조사됐다.

괴롭힘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업무환경 악화 48.1%, 정서적 괴롭힘 41.7%, 정신적 괴롭힘 27.5%의 순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 또는 목격한 종사자들은 대부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

시설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 예방·해결을 위해서는 교육(21.1%)과 가해자 처벌 강화(20.7%), 내부 규정(16.6%) 및 상담창구 마련(14.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종원 연구회 대표(더불어민주당·담양1)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데 직장 내 괴롭힘은 종사자들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연구회는 이번달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사회복지시설 내 괴롭힘·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책과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 매뉴얼 개발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행복시대 열자”

금지사 정례조회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 주도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1일 "전남이 국토 최남단에 있지만, 지도를 거꾸로 돌리면 태평양을 향해 뻗어있다"며 "서을 중심의 사고를 떨치고 인식을 전환,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활짝 열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12월 정례조회를 통해 "전남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4년 전 민선 7기 첫 지사로 취임할 당시 부담감이 크고 어깨가 무거웠다"며 "하지만 도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면서 팀워크를 잘 발휘해 여러 면에서 성과를 냈고 이에 따른 자신감으로 민선 8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이란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

업이 안정적 전력 계통을 확보한 전남의 여건을 확인하고 2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가 앞서가고 있는 해상풍력과 RE100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이끌어야 한다"며 "남해안해양관광벨트 사업에 미온적이던 부산과 경남, 제주까지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이끌어 세계적 관광지구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남의 여건과 잠재력은 이미 세계를 넘어서는 수준에 있다"며 "세계로 웅비하는 공무원의 시각을 갖춰 세계 일류와 경쟁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행감·예산 심의 시의회 지적 공감”

姜시장, 간부회의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 지시

강기정 광주시장은 1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지적 가운데 공감가는 대목이 상당수 있었다"며 "특별회계자금과 기금이 저리의 예금으로 예치돼 이자수익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 광주·대구·아시아게임 공동유치 연구용역이 부실해 시책 근거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귀 기울여야 하는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이 부서 간 칸막이로 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근거 자료를 냉정하게 분석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를 의회가 매우 잘 꼬집어 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집행부가 보지 못한 부분을 의회가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 문제점을 잡아내는 것이 의회의 순기능"이라며 "평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광주의 발전을 위한 개혁의 동반자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시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타당하면 과감하게 수용하고, 설명할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열린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선강기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결사반대

9만 무안군민이
원하지 않는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합니다!

